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A Structural Analysis on School-Aged Children's
Self-Regulation Competence and Its Related Variables*

최해주(Hae-Joo Choi)¹⁾

문수백(Soo-Back Moon)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of school-aged children's self-regulation competence, self-determination, self-efficacy, and mother's acceptive parenting.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544 Children in 5th and 6th grade randomly selected from three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Ulsan-c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AMOS 19.0. The results showed that 1) children's self-determination and self-efficacy were found to affect children's self-regulation competence directly. 2) children's self-efficacy were found to have indirect effect on children's self-regulation competence mediated by children's self-determination. 3) mother's acceptive parenting were found to have indirect effect on children's self-regulation competence mediated by children's self-efficacy or children's self-determination.

Key Words : 자기조절능력(self-regulation competence),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 수용적 양육행동(acceptive parenting).

I. 서 론

인간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며 싫어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등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자신에 대해 가지는 여러 신념들의 집합체계를 우리는 자기(self)라고 부르며(Hahn, 2005), 자율성(autonomy)과 주도

* 본 연구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¹⁾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학과 박사과정

²⁾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oo-Back Moon, Departmen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Hayang-eup, Gyeongsan-si, Gyeongsangbuk-Do 712-702, Korea
E-mail : iqmoon@hanmail.net

성(initiative)이라는 발달적 과업을 만나면서 자기(self)의 획득이 고조된다(Erikson, 1963). 자기의 획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분쟁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자기(self)를 강조함으로써 발생된 타인과의 갈등은 오히려 인간에게 있어서 현재 또는 미래의 가장 적절한 행동을 찾기 위한 자기통제 및 조절 등의 새로운 자기(self)의 기능을 요구하기도 한다.

자기조절(self-regulation)이란 타인의 명령이나 지시 또는 내면화된 사회규범에 의해 자신의 욕구 및 행동을 억압하는 자기통제(self-control)와는 달리 자신의 목표 및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욕구와 사고, 정서 및 행동 등을 조정하는 행위로, 완전한 자기(self)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조정해야 하는 과정 속에 살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성취지향적인 사회에서는 외부의 명령이나 지시,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자신을 통제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행동을 조정하는 자기조절능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Yang, 2006). Bandura(1992)는 ‘인간의 의도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일반적 틀’을 ‘자기조절’체계라고 할 만큼 자기조절능력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으며, Baumeister(2003)는 알코올 및 약물남용, 폭력, 범죄, 학업에 있어서의 저조한 성취, 섭식장애, 비만, 도박, 운동부족, 흡연, 게으름, 그리고 기타의 수많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 문제들을 자기조절의 실패로 간주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자기조절을 설명하고 있다. 자기조절능력은 연령이 증가한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인지능력의 발달과 더불어 적절한 학습과 훈련을 통해 향상되며(Huh, 2003; Kopp, 1982), 아동기에 형성된 자기조절능력은

개인행동의 여러 측면을 통해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Bronson, 2000; Kopp, 1982)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기에 긍정적인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을 위한 노력이 강조된다.

자기조절에 대한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기조절능력의 원인변인을 찾고자하는 연구는 대다수 ‘학업적 상황’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이 설명력과 예측력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Bandura, 1997) 아동의 행동을 통합적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상황을 제한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던 중에 방해받거나 주의가 흐트러질 때,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좋아하는 과자(음식)를 먹을 때, 화가 날 때 등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휘되는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인간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견해와 인식은 자신의 행동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점진적으로 인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에 대한 견해와 인식에 대한 관점은 크게 ‘자신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인식’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자신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인식’은 자신(혹은 인간)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존재로 지각하느냐의 문제이거나, 또는 자신을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의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느냐 등의 문제이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행동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며, 행동에 대처하는 자세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게 된다(Ryan & Connell, 1989). 이처럼 자신이

나 인간의 본성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특성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의 사고와 행동을 설명하는 용어 중의 하나가 바로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이다. 자기결정성은 Deci와 Ryan을 중심으로 1985년경부터 하나의 이론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에는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기이론에서 자기결정성은 개인의 성격발달과 행동에 대한 자기조절을 위한 내적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Deci & Ryan, 1985, 2000; Ryan & Connell, 1989), 이에 인간의 조절유형을 개인의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무조절, 외재적, 부과된, 확인된, 통합된, 내재적 조절의 순으로 분류하고 있다(Deci & Ryan, 1985, 2000). 자기결정성이 없다면 동기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통제 및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자기결정성이 존재하면 동기가 형성되어 어떠한 형태로든 자기통제 및 조절이 이루어진다. 특히 자기결정성이 높으면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가 형성되어 외재적 조절보다는 통합된 혹은 내재적 조절이 이루어진다. 자기조절은 내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동이므로 자기결정성이 자기조절(self-regulation)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 자기결정성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Choi, 2002; Lee, 2008; Lee, 2007)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자기결정성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조절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아동의 자기결정성이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신에 대한 견해와 인식의 또 다른 관점인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인식’은 자신을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느냐의 문제로, 학자

에 따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기유능성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 중 Bandura를 중심으로 사회인지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최근까지 인간 행동의 중요한 동기요소로 연구되어져 오고 있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떠한 상황이나 과제이건 상관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신념과 믿음을 의미하는데, Bandura(1992, 1997)는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자기조절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인지과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상황을 자기 동기화시키며, 조절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하여 자기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실제적으로 Wood와 Bandura(1989)의 연구결과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문제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인지전략을 찾는 전략적 사고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2007)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하위요소인 메타인지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효능감이 자기조절능력의 원인변인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자기결정성 획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Wehmeyer(1996)는 자기결정적 행동을 위해 요구되는 11개의 기술 및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이며, 실제적으로 Jeon, Sihm와 Yoo(2011)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관련성을 구조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자기결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hn(2009)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결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기효능감이 자기결정성의 원인변인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자기결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자기결정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성취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Kim, 2010; Lee, 2009)이나, 자기효능감이 자기결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고한 연구결과(Jeon, Sihm, & Yoo, 2011)와 자기결정성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고한 연구결과(Choi, 2002; Lee, 2008)들을 통합적으로 해석하여 볼 때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자기결정성을 통해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자기결정성을 매개로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기조절능력은 인지능력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노력에 의해 환경으로부터 학습된다(Kopp, 1982). 아동을 둘러싼 환경 변인, 특히 가정 변인은 자기조절능력의 관련변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정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삶의 공동체로 가족구성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건강한 자아의 획득과 인격형성의 기본적인 토대를 심어주는 중요한 심리적 환경으로 작용한다(Erikson, 1963). 특히 부모의 수용적(애정적) 양육행동은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양육행동으로 제안(Maccoby & Martin, 1983; Rohner, 1986)되고 있으며, 이미 여러 선행연구들(Huh, 2003; Molianen, 2005; Nam,

2004)에서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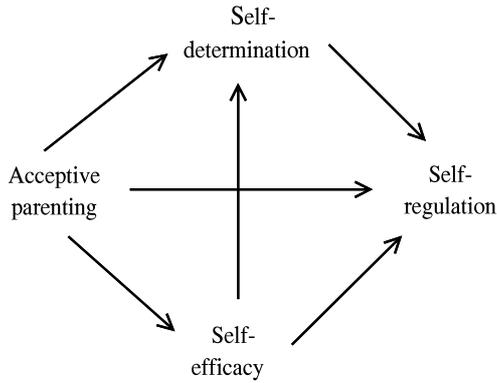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행동 근원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동기요소로 평가되고 있는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과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아동이 현재 경험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떠한 인과적 관련성을 가지면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방법상 구조회귀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관련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에서 직접 및 간접효과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통계기법상 측정오차가 통제되어 연구의 신뢰도가 향상되었다는 점에도 연구의 또 다른 가치가 있다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자기결정성을 매개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을 매개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Figure 1과 같은 가설적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Figure 1> Hypothesized research model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구조회귀모델의 신뢰로운 추정을 위한 최소한의 연구대상을 얻기 위해 모수치 대 피험자의 비율 1 : 10~20의 기준(Kline, 2011; Moon, 2009)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재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5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대상의 연령을 위와 같이 선정한 근거는 학령전기 이후에야 자기조절능력이 획득되며(Becker, 2000; Kopp, 1982),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안정적인 자기상이 형성되는 학령전기 이후에야 가능(Harter, 1988)하기 때문이다.

2. 측정도구

1) 자기조절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Moilanen(2005)의 ‘청소년의 자기조절척도(The Adolescent Self-Regulation Inventory)’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ASRI는 점검(monitoring) 15문항, 적극성(activating) 10문항, 적응성(adapting)

9문항, 인내(persevering) 12문항, 억제(inhibiting) 21문항 등 5개 하위요소, 총 67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원척도는 원제작자에 의해 내용타당도가 밝혀진 척도이나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내용타당도가 흐려질 수 있으므로 번안하는 과정에 신중을 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Moilanen(2005) 척도에 대한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 그리고 신뢰도 검증을 통해 원척도의 5개 하위요소의 모든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5품등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거의 항상 그렇다(5점)’까지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기조절 검사의 하위척도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추정한 결과, 점검 .72, 적극성 .76, 적응성 .68, 인내 .80, 억제 .85로 나타났다.

2) 자기결정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결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Wolman, Campeau, DuBois, Mithaug 와 Stolarski(1994)가 개발한 ‘자기결정성 척도(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 Self-Determination Scale : Student Form)’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Wolman 등(1994)은 개인이 자기결정적인 사고와 지식 등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결코 자기결정적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AIR Self-Determination Scale 은 자기결정적 지식(Capacity- do) 6문항, 자기결정적 사고(Capacity- feel) 6문항, 학교에서의 자기결정적 기회(Opportunity- school) 6문항, 가정에서의 자기결정적 기회(Opportunity- home) 6문항 등 4개 하위요소,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자

기보고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AIR Self-Determination Scale의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통해 원척도의 4개 하위척도의 모든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5품등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결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기결정성 검사의 하위척도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추정 한 결과, 자기결정적 지식 .80, 자기결정적 사고 .82, 학교에서의 자기결정적 기회 .85, 가정에서의 자기결정적 기회 .90으로 나타났다.

3)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Muris(2001)의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 Child Protocol)’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GSE-CP는 학업적(Academic) 자기효능감 8문항, 사회적(Social) 자기효능감 8문항, 정서적(Emotional) 자기효능감 8문항 등 3개 하위요소,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GSE-CP의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통해 원척도의 3개 하위척도의 모든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5품등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5점)’까지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자기효능감 검사의 하위척도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추정 한 결과, 학업적 .82, 사회적 .80, 정서적 .77로 나타났다.

4) 부모의 자녀 수용-거부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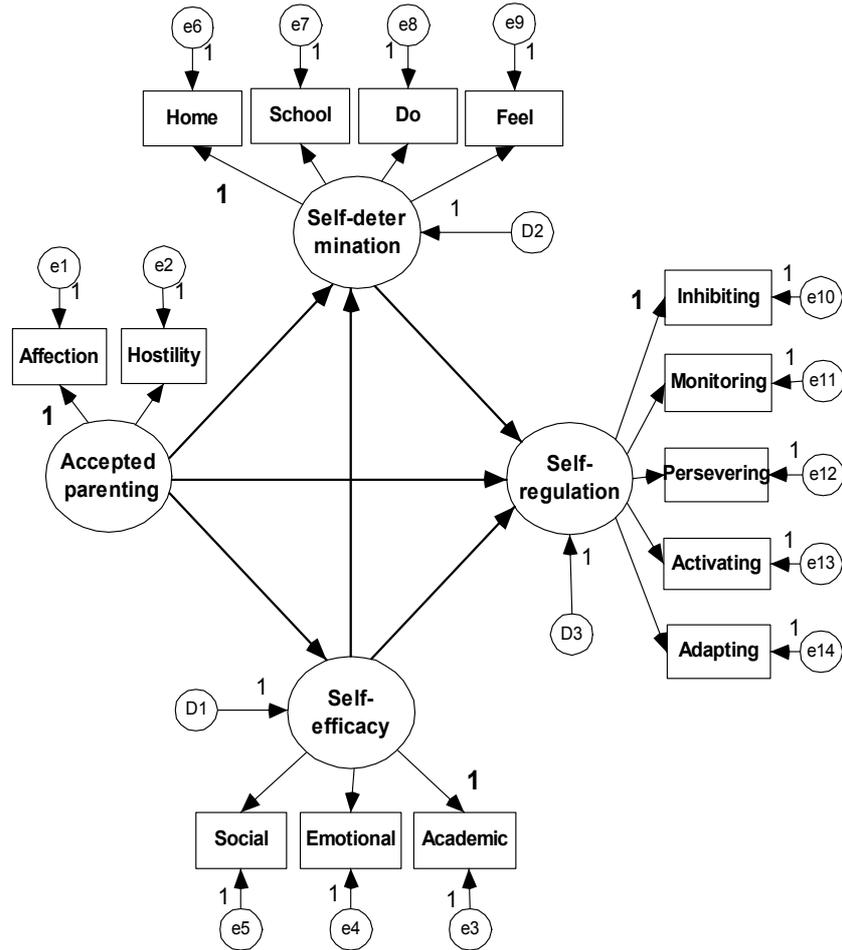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을 측

정하기 위하여 아동용으로 제작된 Rohner(2005)의 ‘부모의 자녀 수용-거부척도(Chil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Child PARQ에서는 수용적 양육행동의 구성요인을 4개의 하위요소(Warmth/Affection, Hostility/Aggression, Indifference/Neglect, Undifferentiated rejection)로 구성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무관심/무시, 미분화 거절 문항들이 지극히 미국적인 상황을 반영한 질문이라 판단되어 온정/애정과 적대/공격의 하위요소만을 채택하여 수용적 양육행동으로 명명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Child PARQ의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 그리고 신뢰도 검증을 통해 원척도의 온정/애정과 적대/공격의 2개 하위 척도의 모든 문항인 총 30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4품등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4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 검사의 하위척도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추정 한 결과, 온정/애정 .93, 적대/공격 .83으로 나타났다.

3. 통계모형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원인변인으로 선정한 아동의 자기결정성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 간의 직접 및 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Figure 1의 가설적 연구모형에서 각각의 잠재변인에 특정 지표변수를 설정하여 Figure 2와 같이 4개의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과 1개의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이 존재하는 구조회귀모형(structural regression model)을 통계적 검증



<Figure 2> Proposed structural equation model

모델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인들 간의 다변인정규분포의 가정이 충족됨에 따라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구조회귀 모델의 2단계 검증절차(Moon, 2009; Kline, 2011)에 따라 측정모델과 구조모델로 나누어 검증작업이 이루어졌다. 모델 부합도는 부합도 지수인 χ^2 값, TLI, RMSEA, CFI, SRMR를 통해 평가되었으며, 모델의 모수치인 자기조절능력과 관련 변인들 간의 직접 및 간접효과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 과

1.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치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과 각 측정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통계적 검증모델인 초기 구조회귀모델의

<Table 1> Cross-correlation matrix and descriptive statistics for measured variables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Acceptive parenting	Affection	1.00													
	Hostility	.32	1.00												
Self-efficacy	Academic	.45	.27	1.00											
	Social	.48	.29	.63	1.00										
	Emotional	.51	.35	.65	.71	1.00									
Self-determination	Do	.46	.10	.54	.50	.57	1.00								
	Feel	.51	.16	.61	.54	.64	.65	1.00							
	School	.32	.10	.42	.48	.43	.48	.41	1.00						
	Home	.47	.26	.50	.47	.55	.56	.62	.46	1.00					
Self-regulation	Monitoring	.44	.19	.57	.43	.56	.57	.55	.27	.47	1.00				
	Activating	.44	.20	.61	.50	.59	.65	.68	.34	.49	.68	1.00			
	Adapting	.44	.26	.56	.47	.57	.54	.56	.32	.42	.60	.63	1.00		
	Persevering	.46	.30	.50	.42	.51	.51	.54	.29	.44	.67	.68	.65	1.00	
	Inhibiting	.37	.21	.38	.31	.45	.28	.37	.16	.29	.54	.49	.56	.45	1.00
Case		544	544	544	544	544	544	544	544	544	544	544	544	544	544
Mean		58.02	47.73	27.37	28.83	28.65	20.32	19.97	18.17	20.95	49.50	32.03	29.44	36.28	69.14
Standard deviation		8.30	5.34	5.62	5.54	5.09	4.33	4.96	4.79	5.68	7.11	5.95	4.29	7.02	11.76
Skewness		-.21	-1.36	.05	-.18	-.30	-.24	-.12	-.25	-.58	.36	.05	-.14	.08	-.13
Kurtosis		-.56	2.77	-.39	-.28	.23	.20	-.17	.21	.02	-.28	.00	.95	.01	-.06

1=Affection, 2=Hostility, 3=Academic, 4=Social, 5=Emotional, 6=Do, 7=Feel, 8=School, 9=Home, 10=Monitoring, 11=Activating, 12=Adapting, 13=Persevering, 14= Inhibiting

추정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 19.0 의 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 절차를 통해 구조방정식 모델 하의 14개 지표변수들에 대한 다변인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단변인의 왜도와 첨도 모두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다변인정규분포성 가정 역시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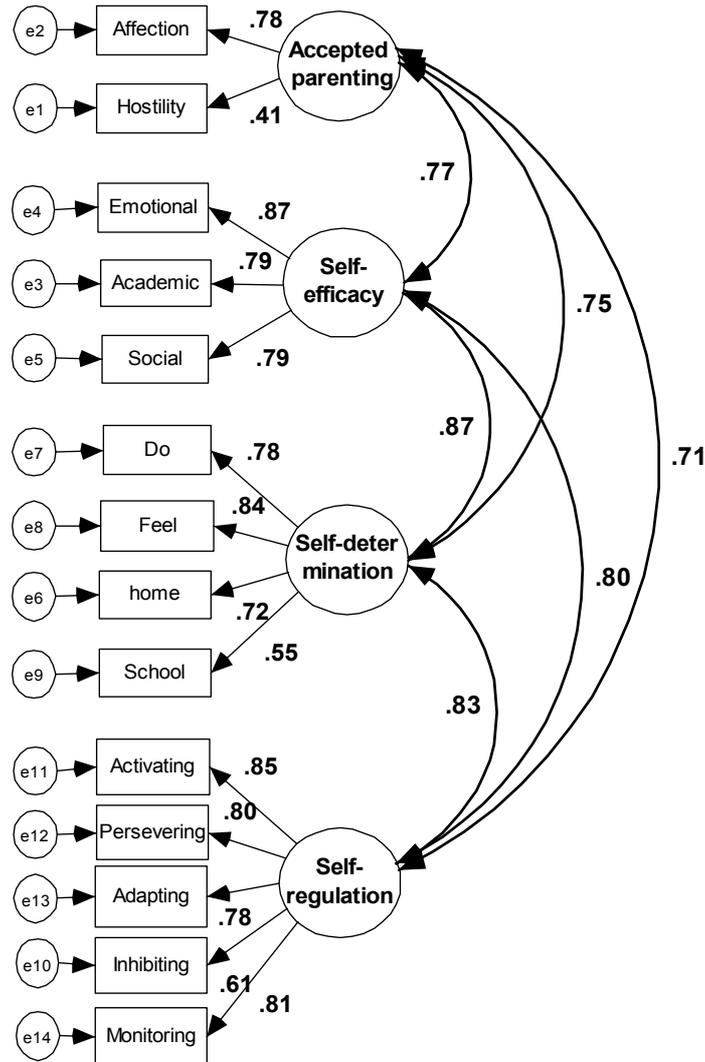
2. 측정모델의 부합도 검증과 모수치 추정 결과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검증한 결과, Table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측정모델의 RMSEA(.07~.09)를 비롯한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측정모델들의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 Figure 3과 같다.

<Table 2> Model fit indices for measurement model

Model	NPAR	DF	CMIN	NC	TLI	CFI	SRMR	RMSEA(.07)	
								Lo90	Hi90
Measurement	34	71	377.25	5.31	.91	.93	.05	.07	.09



<Figur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for 14 variables

Figure 3을 통해 잠재변인들 간의 상호상관을 살펴본 결과, 상관계수가 .71~.87 사이로 나타났다.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잠재변인들 간의 변별타당도를 위해 .85~.90이하가 되어야 한다(Brown, 2006; Kline, 2011; Moon, 2009)는 주장에 따라 본 연구의 측정모델들은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잠재변인들이 구성하는

지표변수의 요인 부하량을 살펴본 결과,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지표변수들의 요인 부하량이 평균 .60 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에 대한 지표변수의 요인 부하량은 평균이 최소한 .50 이상이어야 측정하고자하는 잠재변인을 잘 설명할 수 있다(Moon, 2009)는 주장에 따라 본 연구의 측정모델들은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Table 3> Maximum likelihood parameter estimates for SR model of Self-regulation

Parameter	Unstandardized	S.E	C.R	Standardized
Self-determination → Self-regulation	.91	.18	5.17*	.53
Self-efficacy → Self-regulation	.39	.17	2.35*	.24
Acceptive parenting → Self-regulation	.14	.09	1.51	.13
Self-efficacy → Self-determination	.67	.08	8.19*	.72
acceptive parenting → Self-determination	.12	.06	2.07*	.19
acceptive parenting → Self-efficacy	.53	.07	7.82*	.77

* $p < .05$.

있다. 앞서 본 측정도구들의 신뢰도 또한 양호한 것을 확인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측정도구들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초기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검증과 모수치 추정 결과

측정모델의 부합도 지수와 모수치들이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측정된 잠재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초기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든 부합도 지수가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수치 추정결과, Table 3과 같이 대다수의 변인들 간에서는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C.R = 1.51, $p > .0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 구조회귀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경로를 삭제하여 Figure 4와 같이 수정 연구모델을 설정한 다음, 초기 연구모델과 수정 연구모델 간의 부합도 차이를 검

<Table 4> Model compari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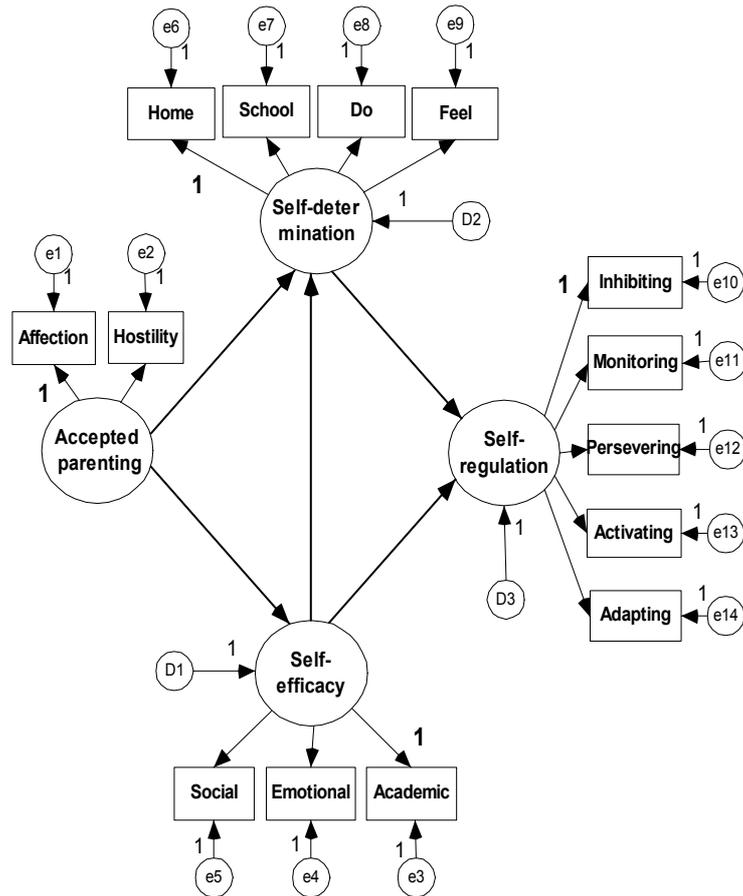
Model	df	χ^2_D	p
Original			
Modified	1	2.59	.48

$p < .05$.

증하였다. 그 결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 연구모델의 부합도가 초기 연구모델의 부합도 보다 2.59($\chi^2_D = 2.59$)만큼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모델의 간명성은 1만큼 좋아진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초기 연구모델보다 수정 연구모델이 더 좋은 모델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초기 연구모델에서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경로를 제거한 수정 연구모델을 본 연구의 최종 연구모델로 선정하였다.

4. 수정된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검증과 모수치 추정 결과

수정 모델의 부합도 지수를 검증한 결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 모델의 부합도 지수는 초기 연구모델과 유사하였으며 부합도 기준에도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 Modified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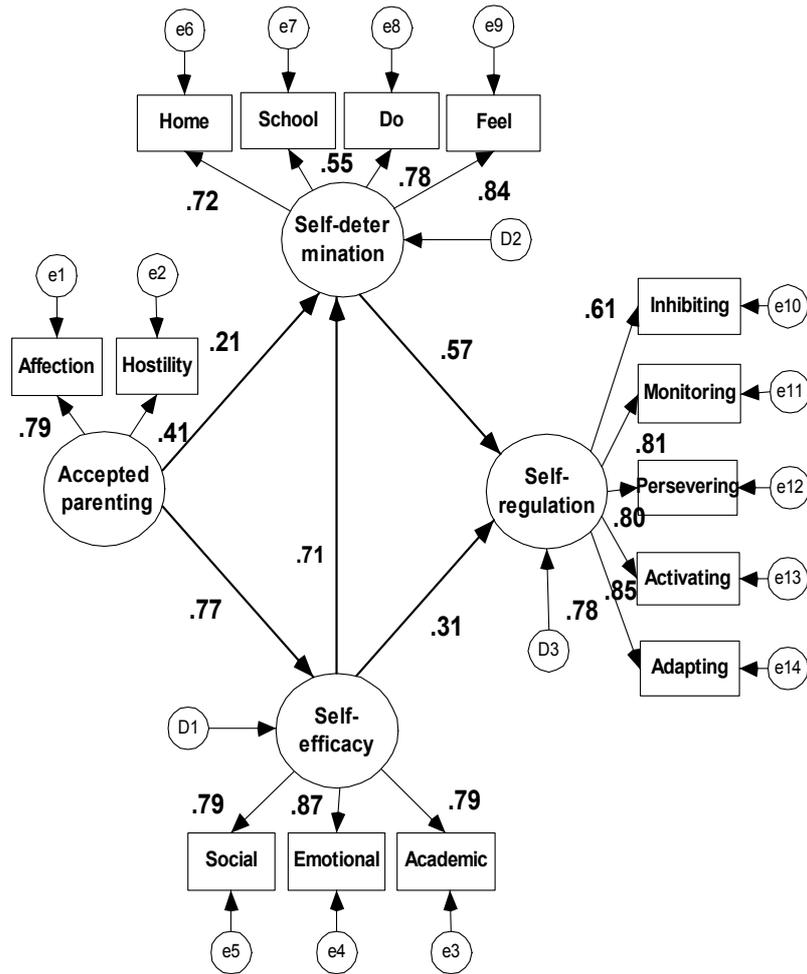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연구모델인 수정 모델의 모수치를 추정하여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를 알아보고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Figure 5, Table 6, Table 7과 같이 나타났다.

Figure 5, Table 6, Table 7을 통해 나타난 최종 연구모델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기결정성($\beta = .57, p < .05$)과 아동의 자기효능감($\beta = .31, p < .05$)이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자기결정성을 매개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beta = .40, 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Table 5> Model fit indices for structural regression model

Model	NPAR	df	CMIN	NC	TLI	CFI	SRMR	RMSEA(.07)	
								Lo90	Hi90
Modified	33	72	379.84	5.27	.91	.93	.05	.07	.09
Original	34	71	377.25	5.31	.91	.93	.05	.07	.09



<Figure 5> Estimate of standardized parameter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able 6> Effects decomposition for a SR model of self-regulation

Parameter	Standardized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Self-determination → Self-regulation	.57*	.57*	.
Self-efficacy → Self-regulation	.71*	.31*	.40*
Acceptive parenting → Self-regulation	.66*	.	.66*
Self-efficacy → Self-determination	.71*	.71*	.
Acceptive parenting → Self-determination	.75*	.21*	.54*
Acceptive parenting → Self-efficacy	.77*	.77*	.

* $p < .05$.

<Table 7> Evaluation of indirect effects for a SR model of Self-regulation

Parameter				Standardized			
				Z	SE	p	
Self-efficacy	→	Self-determination	→	Self-regulation	2.08*	.06	.03
Acceptive parenting	→	Self-determination	→	Self-regulation	4.63*	.14	.00
Acceptive parenting	→	Self-efficacy	→	Self-regulation	2.99*	.08	.00
Acceptive parenting	→	Self-efficacy	→	Self-determination	5.62*	.06	.00

* $p < .05$.

다. 셋째,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결정성과 자기효능감을 통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beta = .66, 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전체효과는 아동의 자기효능감($\beta = .71, p < .05$),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beta = .66, p < .05$), 아동의 자기결정성($\beta = .57, p <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관련변인으로 아동의 자기결정성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을 선정하여 이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이론과 선행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변인들 간의 직접 및 간접 경로가 구성된 구조회귀모델을 설정한 후,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에 대한 2단계 검증절차로 나누어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측정모델에 대한 검증결과, 측정모델의 모든 부합도 지수가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수치에 대한 유의성 검증에서도 모든 모수치들이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모델, 즉 측정도구들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

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초기 구조회귀모델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었다. 초기 구조회귀모델에 대한 검증결과, 모든 부합도 지수는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수치의 경우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통계적으로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경로를 삭제하여 보다 간명한 모델로 연구모델을 수정하였다. 수정 모델은 초기 연구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더 좋은 모델로 평가되어 본 연구의 최종 연구모델로 선정되었다.

최종 연구모델에 대한 검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기결정성과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의 자기결정성이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자기결정성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결정성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Lee, 2008; Lee, 2007; Choi, 2002)과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자기조절은 단순한 상황적 요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과는 상관없이 개인이 필요성을 지각할 때 개시되며, 진행방향 역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향보다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나

계획한 방향으로 진행이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은 자신이 세운 목표나 계획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점검과정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모색하는 행동을 요구한다. 이처럼 자기조절은 외적 요소가 아닌 본인의 생각과 의지 등의 내적 요소와 관련성이 깊다. 그런데 자기결정성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여러 정보들을 자기 동기화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yan & Deci, 2000). 자기결정성은 행동을 유발시키고 지속시키는 힘의 근원이 개인 내부에서 발생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외부에 존재하는 힘을 내면화 또는 통합시킴으로써 내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여 스스로를 행동의 주체자로 지각하게 만들어 개인의 자유의지와 내적 기준에 의해 행동을 결정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자기결정성이 높은 사람은 목표를 향해 행동할 때 본인의 선택과 흥미에 일치하는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조절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자기결정성이 자기조절을 위한 내적 근거로 작용한다는 주장(Deci & Ryan, 1985, 2000; Kim, 2002; Vallerand, Pelletier, Blais, Briere, Senecal, & Vallieres, 1992)에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자기결정성이 높은 아동이 자기조절에서 유리할 수 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Lee, 2007)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사람은 걱정과 불안이 앞서 주어진 일을 실제보다 어렵게 지각하고, 이로 인해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더욱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과업수행에 있어 실패가

능성이 크다는 주장(Bandura, 1997),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전략적 사고가 우세하다는 연구(Wood & Bandura, 1989)들을 종합하여 분석함으로써 해석이 가능하다.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이 높은 아동은 자기조절적 상황을 걱정과 불안의 상황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지각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 만 아니라, 전략적 사고가 우세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자기조절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자기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음이 밝혀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필수적 요소로써 자기조절체계내의 심리과정인 인지과정, 동기 과정, 정서 과정 및 과제선택 과정에 작용하여 자기조절행동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Bandura(1997)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자기결정성과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개인 내적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기결정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아동의 자기결정성이 증진되어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선행연구는 없지만 자기효능감이 자기결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Jeon, Sihm과 Yoo(2011)의 연구결과와 자기결정성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Choi(2002)와 Lee(2008)의 연구결과들을 통합하여 해석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된다. 이

러한 믿음이 외적인 요소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이미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개인내적 요소로 자리매김하여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결정하고 수행하는데 중요한 동기역할을 하게 된다 (Bandura, 1997). 모든 인간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일을 선택하여 행하므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결정에 의한 행동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대다수의 상황에서 아동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믿음이나 신뢰감이 높으면 자신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기결정적 사고와 행동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자기결정성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기결정성은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중 전체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에 큰 의미를 지니는 개인내적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기 연구모델과는 달리 최종 연구모델에서는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간에 직접적인 경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들(Huh, 2003; Molianen, 2005)과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의 차이는 동일한 잠재변인에 대해 각 연구에서 개념화하는 조작적 정의의 차이로 인해 잠재변인이 구성하는 지표변수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애정적·수용적 양육행

동은 다른 차원의 양육행동보다 초기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Erikson, 1963; Maccoby & Matin, 1983)는 주장을 바탕으로 부모 이외 친구 또는 교사 등의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학령기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력보다는 다른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을 통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결정성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Woo (1993)의 연구결과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아동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Lee(2007)의 연구결과들을 통합적으로 해석한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율성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환경적 변인임을 밝힌 Paterson, Field와 Pryor(1994)의 연구와 자기결정성이 높은 동기유형을 가진 아동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서 보다 긍정적인 수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Lee(2007)와 Lee(2008)의 연구결과들을 통합하여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과 온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명령과 지시보다는 자녀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격려·지지하며, 체벌보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은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됨으로써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다양한 상황과 과제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감이 생기게 되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려는 자기결정적 사고 및 행동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수행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수용적인 양육 행동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아동의 자기결정성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기결정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그리고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결정성과 자기효능감을 통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을 통제하고서도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구결과에 대한 개별적인 해석보다는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연구의 가치를 높인다. 즉 환경 변인으로써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개인내적 변인인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을 증진시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심층적인 인과모형을 검토하기 위해 보다 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인으로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결정성 및 자기효능감이 밝혀짐으로써 각각의 원인변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밝혀내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아동의 자기결정성에 대한 연구나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관련

변인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나 앞으로 이루어질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아동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통제·조절하여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참 고 문 헌

- An, S. J. (2009).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motivation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self-esteem and coping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ndura, A. (1992). Self-regulation of motivation through anticipatory and self-regulatory mechanism. In R. Dienstbier (Ed.), *Perspectives on motivatio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8, pp. 237-28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Baumeister, R. F. (2003). Ego depletion and self-regulation failure: A resource model of self-control.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7(2), 1-4.
- Becker, L. E. (2000). *Child Development*(5th ed.). Boston: Allyn & Bacon.
- Bronson, M. B. (2000).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Nature and Nurture*. New York: Guilford Press.
- Choi, B. Y. Educational Application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16, 165-184.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319-338.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 Plenum Press.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Y : Norton.
- Hahn, D. W. (2005). *Psychology of Human motivation*. Seoul : Pakyoungsa.
- Harter, S. (1988).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 Revision of the competence perceived scale for children : Manua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Colorado, U.S.A.
- Huh, Jung-Kyung (2003). *A study on the scal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and the related variables of children in the school 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Jeon, S. H., Sihm, M., & Yoo, M. S. (2011).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Wellbeing in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 (1), 275-296.
- Kim, A. Y. (2010). Self-Determination Theory : Research and Applications in Educational Setting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24(3), 583-609.
- Kim, A. Y. (2002). Validation of taxonomy of academic Motivation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16, 169-187.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 Guilford Press.
- Kopp, C. B. (1982). Antecedent of Self-Regulation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Lee, H. J. (2008). Type of Motivation for Self-Determination : Children's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3), 273-288.
- Lee, N. H.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self-determination, self-efficacy and self-regul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buk, Korea.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P. H. Musse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 1-101). New York : Wiley.
- Moilanen, K. L. (2005). *Parenting and self-regulation in adolescence : Associations with adolescent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 Nebraska, U.S.A.
- Moon, S. B. (2009).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19.0*. Seoul : Hakjisa
- Muris (2001). A Brief Questionnaire for Measuring Self-Efficacy in Youth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3, 145-149.
- Nam, J. H.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mother's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ce's self-regulation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mother, father,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23, 579-601.
- Rohner, R. P. (1986). *The Warmth Dimension*.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 Rohner, R. P. (2005).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 : Test manual. In R. P. Rohner & A. Khaleque (Eds.),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pp. 43-106). Storrs, CT : Rohner Research Publications.
-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49-761.

- Ryan, R. M., & Deci, J. P.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 54-67.
- Ryan, R. M., & Gronlick, W. S. (1986). Origins and pawns in the classroom : Self-report and projective assessment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percep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50-558.
- Vallerand, R. J., Pelletier, L. G., Blais, M. R., Briere, N. M., Senecal, C., & Vallieres, E. F. (1992). The academic motivational scale : A measure of intrinsic, extrinsic, and a motivation in educ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2*, 1003-1017.
- Wehmeyer, M. L. (1996). Student self-report measure of self-determination for students with cognitive disabilities. *Education and Training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31*(4), 282-293.
- Wolman, Campeau, DuBois, Mithaug, & Stolarski (1994). *AIR Self-Determination Scale and user guide*. Palo Alto, CA : American Institute for Research.
- Woo, H. J. (1993). *Investigation on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home environment and children's self-effic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buk, Korea.
- Yang, O. S. (2006).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Rating Scale for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3*(2), 161-187.

2011년 10월 31일 투고, 2012년 2월 7일 수정
2012년 2월 10일 채택